

## 저출산·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석위원 초청 격려 간담회

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국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빠른 변화 때문에 여러 갈등이 많고 풀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.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.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이 너무나 많아, 인식의 차이가 크고 적대적 감정도 큼니다.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여러 지도자들이 약속했습니다. 저도 대통령 후보로 나와 국민통합을 약속했습니다.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다 할 성과 내지 못했습니다. 개별 개별 갈등사안에 대해 노력했지만 큰 틀에서 노사화합 해내지 못했고 동서간의 갈등도 통합해내지 못했습니다.

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단념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가운데 이해찬 총리께서, 2005년 국회 아니었던가 하는데, 또다시 제안해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해 주셔서 사회적 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.

합의가 성취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, 이것이 우리사회의 희망을 갖는 대화인 만큼 꼭 성과 있게 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. 정부는 여러분들이 합의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이행하도록

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.

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, 그래도 이행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옵니다. 그러나 서로 믿고 꼭 이행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 한 마디 하고 악수 딱 하면 그것이 많은 구체적 내용 생산하는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

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잘 될까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, 소중한 합의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발씩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. 그래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합의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는 사회적 성과와 진보가 이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결과 여하에 따라 한국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정부로서는 어쨌든 합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현실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짜내고 노력하겠습니다.